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 네트워크 이해:
스케일과 정체성을 중심으로

2009. 6. 16.

발표자: 이 용균(전남대 입학사정관)

I. 서론

1. 연구배경

1.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 증대: 문화의 세계화, 노동이주, 국제결혼 등

2. 결혼이주여성의 증대: 문화의 섞임, 국제결혼의 문제 등

3. 국제결혼 증대에 따른 농촌지역의 변화: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정교육 등

2.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문제제기

1. 왜 농촌의 국제결혼 문제를 이주여성에 국한시켜 접근하는가?
2. 국제결혼은 국제적 현상인데 왜 지역(로컬)적 스케일에서 주로 분석되는가?
3.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은 왜 타자로서만 인식되는가?

2) 연구목적

1.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어떠한 공간적 범주에서 어떻게 작동되는가?
2. 결혼이주여성의 민족문화네트워크는 어떠한 공간스케일에서 작동하는가?
3.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은 어떻게 구성되고 변화되는가?

3.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 및 흐름

- 1) 이론적 고찰: 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 민족문화 네트워크
- 2) 이주여성의 사회적응: 결혼에서부터 사회적응의 과정에 대한 일반적 내용
- 3) 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 결혼관계 속에서 나타난 사회적 관계의 특징(지역스케일에 초점)
- 4) 이주여성의 민족문화 네트워크: 다양한 공간스케일에서 민족문화 네트워크의 특성 파악
- 5) 이주여성의 정체성: 농촌이란 공간 속에서 이주여성의 정체성

연구방법

- 1) 참여관찰 및 설문조사: 6개월간 한국어교실에 참여한 후 36명 설문조사(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및 한국어 등 당사자에게 가장 친숙한 언어로 설문 실시)
- 2) 심층면접: 설문조사자 중에서 13명을 선정
- 3) 이주여성 외 인터뷰: 결혼중개업소(2곳), 한국어교사(3명), 여성단체관계자(3명), 정부관계자(3명), 이주여성의 남편(4명), 군의원(2명) 등
- 4) 조사기간: 2006년 7월부터 1년간
- 5) 연구대상 지역: 충북 보은군, 경기 양평군

II. 이론적 고찰(1)

1. 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

- 다문화사회의 담론: 다문화사회의 논의에서는 주류문화의 보편성이 강조되면서 소수문화의 차별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경고
- 포스트식민주의: 주체와 타자의 구분에 의한 차이(차별)에 대한 저항을 강조(사이드, 바바, 스피박..)
 - ※현대사회의 착취와 억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러한 착취와 억압을 없애기 위해서는 인종, 문화, 경제활동의 다양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나 타자성을 인정해야 함.
- 비판적 접근: 푸코, 그람시, 데리다 등의 견해를 차용하면서 사회적 관계에 내재한 권력관계의 불평등을 극복하는 저항의 정치를 강조
 - ※집단은 구별하는 기준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우열을 가리기 위해 구분이 이루어지고, 차이 때문에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위해 차이를 만들어 냄

II. 이론적고찰(2)

2. 민족문화 네트워크

-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 개인의 다양한 관계로 맺어지는 사회결합
※ 개인의 문화적 및 사회적 배경(문화자본, 사회자본, 상징자본)이 사회적 관계를 좌우하고, 사회적 관계 속에 개인의 위치성(positionality)이 나타남
- 스케일: 지리적 규모와 범주의 구분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관계가 전개되는 공간 범위로 사회적 관계는 다양한 스케일에서 작동.
- 초국가주의: 국경을 가로질러 이주자에 의한 다양한 인적 및 문화적 네트워크가 증대(아래로부터의 세계화)
- 이주의 여성화: 여성이 국제이주를 주도(이주의 젠더화와 섹슈얼리티)

II. 이론적 고찰(3)

3. 이주여성의 정체성과 정체성의 정치

- 정체성: 사회적 담론과 실천에 의해 형성되는 단일 실체(?)
- 다중 정체성: 민족, 인종, 젠더, 가정요소 등 다양한 요소의 상호작용과 (상호)교차성 (intersectionality)에 의해 상황과 맥락에 따라 사회적으로 구성
 - ※정체성은 고정되고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복잡성(complexity), 다원성(multiple), 유동성(fluidity)의 특징이 공존하는 변화하는 주체 만들기에 해당
- 타자 속의 또 다른 타자: 농촌의 소외와 농촌총각의 타자화, 그리고 농촌사회에 의한 이주여성의 타자화는 다양한 스케일에서 이주여성의 정체성 정치를 유도(가족관계, 친구관계, 사회활동, 출신국과의 관계 등)
 - ※이주여성은 본국과 정착 국가에서 위치성의 위기에 직면하고, 이주여성의 정체성은 이들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하게 변화

III. 이주여성의 사회적응

1. 결혼과정의 특징

| | 주된 특성 |
|-----------|--|
| 남편과의 만남 | 에이전시(76%), 연애, 종교, 친구/친척 소개 등(24%) |
| 결혼결정자 | 본인(55%), 본인과 부모의 공동 결정(36%) |
| 결혼결정 이유 | 한국생활에 대한 동경이(경제적 상황과 한국문화) 결혼의 주된 이유임 |
| 결혼 때 친정반응 | 찬성(81.5%) |
| 결혼 비용 | 본인이나 친정에서 지출한 결혼비용은 대부분이(84%) 100만원 이하였음 |
| 입국과정 | 개별 입국(79%), 단체 입국(21%) |

※에이전시의 주선에 의한 국제결혼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매매혼에 의한 ‘이주의 여성화’가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결혼을 본인이 결정하고 친정의 찬성이 높다는 점은 단순한 매매혼으로만 인식해서는 안됨을 반영한다.

III. 이주여성의 사회적응

2. 이주여성의 사회적응에 대한 특성

| 분류 | 세 분류 | 주된 특성 |
|-------------|---|---|
| 직업과 소득 | 결혼 전 직업 결혼 후 직업 남편의 직업 남편의 소득 소득 만족도 소득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4%의 여성은 결혼 전 직업을 갖고 있었음 • 대부분 가사에 종사 • 약 60%의 남편은 농업 이외의 분야에 종사 • 소득 모름(43%), 100~199만원(26%) • 만족(76%), 불만족(24%), • 남편(39%), 부부 공동(35%), 시부모(22%), 본인(6%) |
| 가족구성 및 거주환경 | 거주지 가구 구성 결혼 전과 주거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가(28%), 시부모와 함께 거주(72%) • 좋아졌다(70%), 나빠졌다(30%) |
| 가정생활 | 가정생활의 문제 가정생활의 만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소통, 문화적 차이, 남편과의 나이 차 • 만족(90%) |

※이주여성의 가정생활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경제적 요소라기보다는 남편, 시댁식구, 주변의 관심과 사랑임

IV.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네트워크

1. 이주여성의 사회적 네트워크

| 구분 | 스케일 | 주요 특성 |
|----------------|--------------|---|
| 남편과의 외출 및 여가활동 | 개인/가정 공간 스케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달에 한 번 이상 남편과 외식 및 외출을 하는 비율: 약 50%• 남편과 여행 경험: 73%• 개인여가 활동: 16% |
| 이웃 및 한국인과의 관계 | 로컬 스케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인과 접촉이 빈번한 경우: 56%• 친한 한국인이 있는 경우: 약 20% |
| 사회적응 프로그램 | 지역 스케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교실에 국한• 한국어교실의 기능: 초기 정착과정에서 사회적 관계의 토대 |
| 친구관계 | 지역/국가 스케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한 친구수: 2~3명• 친구들의 특성: 같은 출신국의 이주여성• 만나는 이유: 생활이야기, 출신국 음식 공유, 정보교환• 사회적 네트워크의 유지수단: 상호방문, 핸드폰 및 인터넷 |

※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에서 남편의 배려와 한국어교실의 참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이들의 사회적 관계는 로컬/지역 스케일에 한정되고 있음

IV.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네트워크

이주여성의 사회적 참여의 제한

| 구 분 | 스케일 | 주요 특성 |
|------------|--------------|---|
| 사회참여의 제한요소 | 개인→국가 스케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언어소통의 문제/남편 및 시댁의 무관심(개인과 가정 스케일)고립성/지역사회의 편견(지역사회 스케일)문화적 차이와 배타성(지역 및 국가 스케일) |

- 이주여성의 사회참여는 가정에서부터 국가까지 모든 공간스케일에서 제한 요소가 크게 작용
- 이주여성의 낮은 사회참여→이동성(mobility)의 제한→사회적 고립과 배제를 야기
- 문화적 차이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한 농촌에서의 다문화사회 구현은 어려움

2. 이주여성의 민족문화 네트워크

1) 출신국과의 민족문화 네트워크

- 결혼 후 친정방문: 약 61%
 - ※이주여성의 위치성(결혼생활의 원만함, 소득, 남편의 배려, 개인의 열망 등)이 친정방문에 영향을 미침
 - ※남편이 친정을 방문하는 경우, 이주여성의 문화적 차이를 빠르게 수용: “처가를 방문했을 때 낯선 환경에서 아내에게만 의존하게 되었고, 한국에서 아내가 나에게 왜 의존하려고 하는지 실감하게 되었다”(L씨의 인터뷰)
- ‘연쇄이주와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가능성: 친정가족의 한국 방문은 약 30%
 - 연쇄이주(chain migration): 국제결혼의 주선, 가족의 한국이주 등
 - 아래로부터의 세계화가 촉진: 인적 및 물적 교류, 정보교류 등을 통해(디아스포라)

2. 이주여성의 민족문화 네트워크

1) 출신국과의 민족문화 네트워크(계속)

- 친정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 가족관계의 유지, 친정에 대한 경제적 원조
- 친구 및 지인과의 관계: 가족에 해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대리충족
- 인터넷 공동체: 문화적 결핍을 충족



※출신국과의 다양한 관계는 이주여성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음.

2. 이주여성의 민족문화 네트워크

2) 한국에서의 민족문화 네트워크

- 동질문화의 네트워크

- 근거리보다는 동일한 출신국의 이주여성과의 친밀감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
- 동질문화에 토대를 둔 인터넷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있음

- 사회적 동화에 대한 욕구(?)와 문화적 정체성

※이주여성들은 결혼을 통해 한국사회에 빠르게 적응하려고 하나,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문제점과 문화적 차이, 그리고 한국의 배타적 습성이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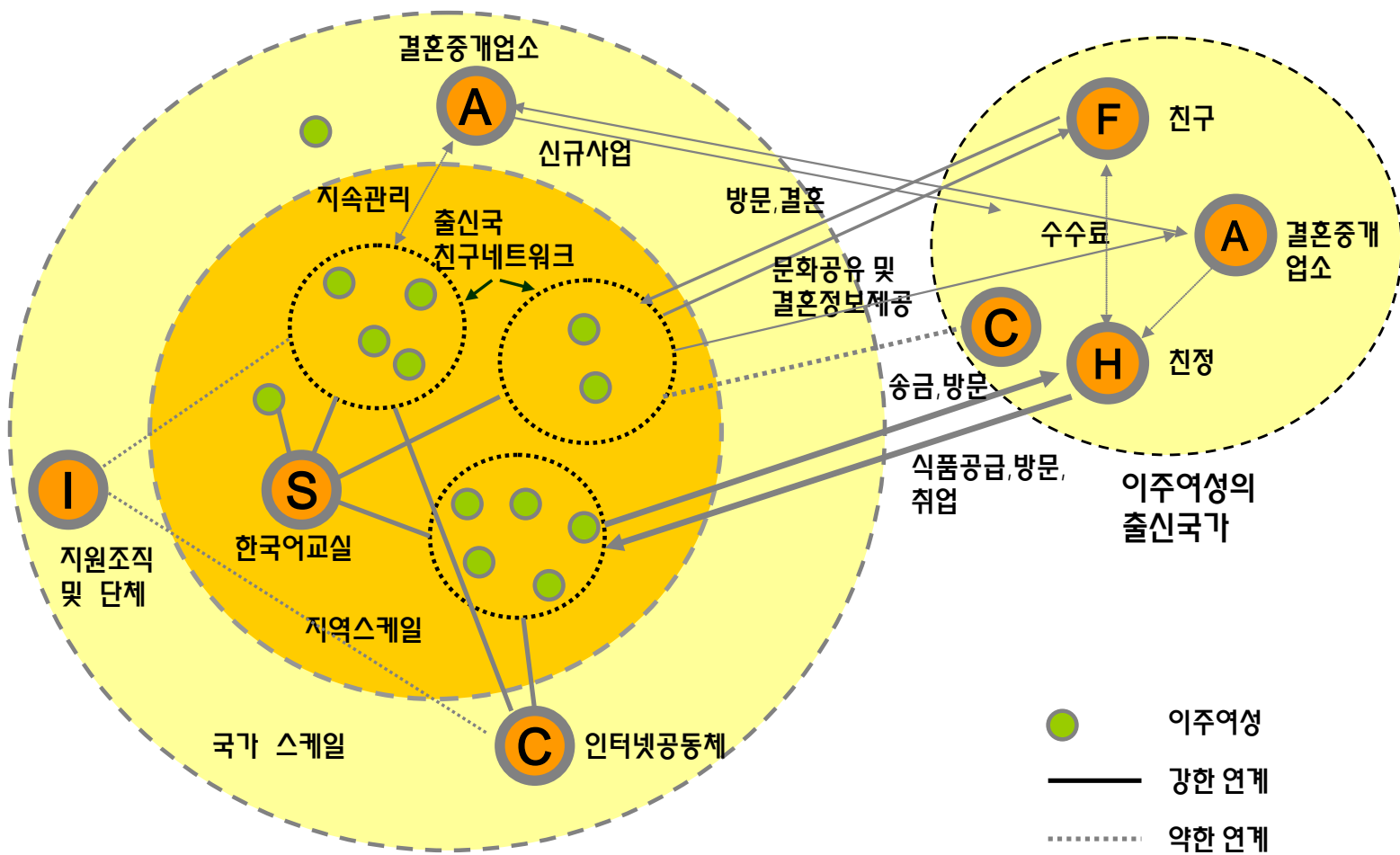
- 소공동체의 활성화: 생활정보, 육아, 직업, 출신국가의 뉴스 등 정보를 공유

※동일 출신국의 공동체가 활성화→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이주여성의 공동체가 출현

- 자국문화에 대한 자부심

※대다수의 이주여성들은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였는데, 한국사회에서 이들 문화에 대한 무시가 자국 문화의 애착과 사랑으로 나타남

3.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네트워크의 종합



4. 이주여성의 정체성

1) 이주여성의 다중 정체성

- 이주여성의 정체성은 고정되고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짐
- 교차성(intersectionality)에 따른 다중 정체성: 가정에서의 위치성, 남편과의 관계, 직장 등 사회활동에 의해 이주여성의 정체성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남
- 양가성과 자기분열
 - 이주여성은 출신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혼성을 경험
 - 한국문화를 동경하면서도 한국사회의 배타성은 자국문화를 강조하게 하고, 자국문화에 대한 애착을 더 강하게 함
 - 정서적 과민증: 한국으로의 국제결혼은 본국에서 정서적으로 배척당하고, 한국사회에서는 타자로 배척을 당함
 - 배우지 못한 남편보다 낫다고 인식하면서도 주변의 무시에 스스로 자기분열을 경험

4. 이주여성의 정체성

2) 정체성의 정치

- 재영역화: 다양한 사회·문화적 네트워크를 통해 일부 이주여성은 재영토화를 시도
- 가정에서의 정체성 정치: 시어머니와의 갈등, 남편과의 갈등 속에서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자녀교육을 통한 저항이 강함)
 - ※이주여성은 자녀에게 자신의 문화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인으로서 자녀교육을 지향(양가성)
- 젠더 정치
 -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이주여성의 존재를 찾기 위한 노력을 시도
 - ※농촌총각은 자신의 처지 및 능력부족에 대한 불만과 함께, 젊은 외국신부로 인하여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게 되고, 농촌사회는 국제결혼을 통해 가부장적 체제가 유지됨
 - 이주여성내부에서의 갈등과 권력관계가 나타남
- 사회집단 및 주류 문화에 대한 비판적 정치
 - 이주여성의 사회적 폭력에 대한 저항 운동을 실시
 - 주류문화 중심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비판

V. 결론을 대신하여

- 이주여성의 문제는 우리사회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 농촌을 타자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이주여성을 타자로 인식하는 사회에 대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
- 다문화의 수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주류문화 주도적인 발상이 아닌가!
- 이주여성의 정체성은 다양한 스케일에 걸쳐 다양한 요소(젠더, 위치성, 민족, 섹슈얼리티)의 교차성에 의해 형성
 - 개인 및 가정 스케일: 타자화, 자녀 교육을 통한 보상심리, 문화적 정체성 유지
 - 지역사회 스케일: 사회참여의 한계와 동질문화의 네트워크 형성, 이주여성 사이의 경쟁과 차별화, 소수의 한국인과 친분관계 유지
 - 국가적 스케일: 이주여성 출신국 네트워크 형성, 국가단위의 이주여성 그룹짓기, 이주여성의 젠더 정치, 이주여성의 차별에 대한 저항
 - 국제적 스케일: 연쇄이주,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 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지역적 특성과 젠더 및 문화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
- ‘다문화’라는 용어는 다양하고 구분이 가능한 문화가 혼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므로, 용어 자체에 차이가 내재되어 있음에 주의해야 함.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의 해체를 통해서만 차이의 구분이 해소될 수 있음